

‘교회여·남평등주간’ 기도집

“이 땅 라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2014년 12월 7일(일) ~ 13일(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목 차】

취지 p.1

공동 설교문 p.2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사 50:4-9)

공동 기도문 p.8

1일

세월호 304인의 의인,
생명과 정의의 꽃으로 부활하소서!

2일

송전탑 건설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소서!

3일

동료폭력으로 죽임당한 자녀를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4일

이 땅 가운데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가 근절되게 하소서!

5일

팔레스타인 어린이 수감자들을 자유케 하소서!

6일

종교간 갈등이 사라지고, 주의 평화 임하게 하소서!

7일

여성목회자들도 몸 된 교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취 지】

교회여·남 평등주간

(2014년 12월 7일~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8차(2000년) 총회는 여성위원회의 헌의를 받아들여 UN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이 있는 주간을 ‘교회여·남평등주간’으로 선포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사건과 사고가 많아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폭력, 납치, 강간으로 자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삶 또한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또한 국가폭력, 제도적 폭력에 의해 기본권을 빼앗기고 일상을 잃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들과 함께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길을 찾고자 2014년 교회여·남평등주간을 맞아 공동기도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한 주간동안 사용할 일곱 편의 공동기도문과 공동설교문 한 편을 수록하였습니다.

통곡하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로를 보듬어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평화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 교】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사 50:4-9)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 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들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 울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짐이 그들을 먹으리라.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인 것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이제 500주년을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만인사제직을 주창했

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남성설교자였습니다. 그것도 평신도의 경우에는 교회가 허락한 경우에 한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함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평등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귀만 여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귀도 동일하게 열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limmud인데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lamad(라마드)의 수동태로서 ‘배우는 사람’ 즉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제자들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그 혀로 곤고한 자들에게 말로 도와주게 하셨다. 그런데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귀를 깨우쳐서 내가 제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이 4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제자라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은 바를 곤고한 사람들에게 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워서 배운 바를, 들은 바를 전해야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합니다. 언제 읽느냐? 하면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읽는답니다.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딱 한 장 읽는 답니다.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도 성경을 읽는데 또 딱 한 장을 읽는답니다. 많이 읽으면 읽는데 욕심이 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한 장씩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는데 말씀을 읽다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울림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울림이 강하면 또 깊이 와 닿으면 메모도 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쓴 것도, 인쇄한 것도 사람이지만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깨닫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들은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 중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되기 힘든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정신적인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또 누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한 주간, ‘교회여남평등주간’을 맞아 매일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 소녀납치사건으로 인해, 밀양송전탑건설로 인해 곤고한 사람들, 군 폭력과 또래집

단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 팔레스타인 어린이 수감자들과 그 부모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난 7개월을 보냈고, 304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헤어 나오기 힘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광화문기도회나 청운동기도회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단원고 학생 어머니들의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이 미용사인데 자신에게는 딸 둘이 있고 죽은 아들이 막내였다고 하면서 그 아들은 내게 너무나도 착하고 어여쁜 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가 미용실에서 힘들었을까봐 자신의 교복도 빨고 밥도 해놓고 집안 청소도 해놓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듣는 우리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기도회 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기도 했습니다. 외동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는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요즘 아이들이 ‘노답!’하면서 답이 없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모든 곤고한 자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 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배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 후반 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시키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날 때리라고 오히려 내 등을 맡겨버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뽑도록 뽑을 내줍니다.

수염을 뽑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당시 이스라엘의 형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의 침 뱉음도 견뎌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여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수치와 곤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근거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부끄럽지도 않고 내 얼굴이 부딪돌처럼 굳어져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와 다들 자가 누구랴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대적하여 맞설 자가 없겠다는 당당함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곤핍하지만, 수치와 모욕이 나를 누르겠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궁극적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맞서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들이 그들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들을 납치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 간 아들을 주검으로 맞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학여행 간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서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듣는 일, 함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들만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귀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의 고통

소리도 함께 듣고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울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50:10)” 우리 모두 고통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문】

함께 기도해요!



* 모든 이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매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소서.

세월호 304인의 의인,
생명과 정의의 꽃으로 부활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죽음과 수치의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여린 아이들의 손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우리는 끝끝내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우리들의 죄악! 잘못 살아온 대한민국의 십자가로 세월호는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참사이백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304인의 죽음은 생명과 정의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생명경시와 물질만능의 풍조는 더 깊이 한국사회를 파고들고만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돈과 힘이 주인이 된 사회가 아니라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품고, 소중히 여기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304인의 영혼이 우리 가슴에 생명과 정의의 꽃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소서.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전탑 건설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소서!

정의의 하나님, 사람들의 억울함을 푸시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어(시72:4) 신음 하는 이 땅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복된 땅을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소박한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밀양 마을주민들과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깨어지지 않도록 자비와
공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송전탑 건설의 근본적인 해결은 핵 발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 발전은
멈춰야 합니다. 노후한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또 다른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 온 생명이 평화로이 사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살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전기를 허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은 우리
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에너지 절제를 통하여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동료폭력으로 죽임당한 자녀를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 올 해에는 생각지도 못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몇날 며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길고 긴 시간동안 동료들에게 맞아 죽은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도 언어맞고 저렇게 해도 언어맞는 그 절망적인 시간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힘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짐승취급을 당해야했던 그 모멸감과 배신감을 하나님은 아시나요?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부짖어도 이 상황을 멈추게 할 사람 하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하나님은 아시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죽지 않았을텐데...’ 하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이 못난 엄마를 용서 해다오” 하며 울부짖는 라헬의 고통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요 사는 이유였던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아이를 잃고 살아가는 시간을 고통으로, 피눈물 삼키며 살아가는 태도로 모든 위로를 거절하며 사는 어머니들을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가 근절되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로 죽어가는 여리디 여린 여아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여린 여아들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가난 때문에 가족을 부양 하러 거리로, 유흥업소로, 성매매 현장으로 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 부끄럼 없이 “제 딸을 팝니다.”라며 이들을 버리는 아버지들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여아들의 인권과 삶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딸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존엄마저도 함께 짓밟히고 있습니다.

남성의 부속물로 여김 당하는 이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아동들의 인신매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정의와 인권존중의 정신을 저희 안에 굳건히 세워주소서. 또한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아동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한국남성들의 부끄러운 아동 성(性)매수가 근절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팔레스타인 어린이 수감자들을 자유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저 멀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천 년 전 헤롯왕이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을 때와 같은 큰 아픔과 울부짖음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뒤덮은 듯합니다.

그 땅에서 또다시 어미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충구에 짓눌린 자녀들, 수감에 채여 심문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해 약 700명의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확인이나 보호 없이 구금과 심문, 재판에 당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이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수많은 라헬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의 자비를 베푸시어 죄 없이 피 흘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살펴주시고, 칼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 되게 인도 하옵소서. 모든 무죄한 희생자들을 주님의 자비하신 품에 안아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악한 폭군들의 흥계를 무너뜨리셔서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간 갈등이 사라지고, 주의 평화 임하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종교간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끊이지 않는 유혈참상을 볼 때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끝없는 전쟁의 소문과 난리는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며, 수많은 여성들과 여아들은 신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자행되는 각종 테러와 보복전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의하여 발생된 나이지리아 소녀들의 납치사건은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테러와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각종 무기상들이 이득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는 현실을 수궁하게 되면서 묵과하거나 각종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편협한 종교적 아집과 독선에 빠진 부패한 종교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생명을 경히 여김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교 간의 갈등 및 각종 테러를 멈춰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탄식을 들어 주시어 참된 평화의 날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성목회자들도 몸 된 교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대한민국이 뽑혔습니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 낳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가정이 많아져 초저출산국가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복된 일들을 축하 속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비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 특히, 여성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임신하게 된 사실을 숨겨야 하는 현장, 임신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 얼마나 큰 아픔인지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수고가 교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육아 휴직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가 생동감 있게 하옵소서. 남녀(여남)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몸 된 교회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집 제작에 참여한 이들】

공동설교문

김혜숙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

공동기도문

서은정 목사 (기독교여민회 총무)

신미숙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미화 사관 (구세군 군국가정단 서기관)

이은주 목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혜진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총무)

김기리 사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편집 · 제작

정해선 국장, 황보현 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겨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 성 위 원 회